

투데이

# 13년 방치됐던 광주 서방지하상가

## LED 식물재배 시설로 부활한다

### 8월까지 민간사업자 선정...연내 완공

장기간 방치됐던 광주 서방지하상가에 LED(발광 다이오드) 식물재배 시설이 들어선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999년 공사가 중단된 뒤 13년여 동안 방치돼 왔던 광주 북구 풍향동 서방지하상가 2112㎡(653평) 중 활용이 가능한 460여 평에 화훼와 과일 등을 키울 수 있는 LED식물재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67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시는 공간만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는 15년 안팎의 기부채환 조건으로 무상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사업자 제안 공고와 평가 등 공

모찰차를 걸쳐 사업자를 선정한 뒤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완공할 방침이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LED 식물재배공장 3곳이 추진돼 2곳이 영입중이다.

서방지하상가는 강 시장이 관선 시장이었던 지난 1995년 처음 입안된 뒤 1997년 2월 주민투표까지 거쳐 착공했으나 공사착공 2년만인 1999년 시공사의 자금난과 경기침체로 공정을 31% 상태에서 전면 중단됐다. 당시 인근 주민들은 서방지하상가 공사로 교통체증이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상가 매상마저 급격히 감소했다며 도로를 원상복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도로만 복구한 채 13년여 동안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지난 13년간 방치되어 왔던 광주시 북구 서방지하상가가 LED식물재배 공장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방지하상가 내부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본 모습. <광주시 제공>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서방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해서 분양할 경우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반면 LED식물공장으로 전환할 경우 수익성 문

제가 있었지만, 주민의견 수렴 결과 LED 식물공장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민자사업자들의 의향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흑산도에 체류형 친환경 휴양시설 조성

### 국토부, 전남 6개 시·군 신발전종합구역 승인

신안군 흑산도에 친환경 휴양시설이 건설되는 등 전남지역 섬이 해양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오는 2020년까지 육성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신안·무안·해남·진도·영암군·목포시 일대 781㎢(서울시의 1.3배)에 대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변경·승인했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은 낙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광역으로 묶어 종합·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을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제도다.

이번 계획은 전남도에서 지난 2008년 승인한 계획을 실현 가능한 사업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변경승인 요청한 것으로, 구역면적을 1216.1km에서

782.98km로, 사업수를 29개에서 14개로 각각 줄였다. 사업비도 24조6000억원에서 3조6987억원으로 20조99억여 원이 줄었다.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우선 신안군 흑산도에 친환경 휴양시설이 조성된다. 흑산도는 아름다운 해안선, 기암절벽, 청정해역 등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데도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중인 흑산도 소형관광 건설에 맞춰 회의장, 야외공연장, 미술관, 식물전시장 및 산책로 등 체류형 휴양시설을 조성함으로써 흑산도가 관광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안군 굴도, 도덕도, 울도 등 해양경관이 아름다운 섬에는 펜션, 리조트 단지와 식물테마파크 등을 조성

해 최근 많은 관광객이 찾는 증도 열도라도 리조트의 성공사례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남 서남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 세라믹 산업단지, 진도군 군내 산업단지 등 8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도 세제감면 혜택 등을 준다.

또 종합발전 구역내 사업계획은 발전촉진지구(6개)와 투자촉진지구(8개)로 나뉘 추진된다. 발전촉진지구는 ▲울도 식물테마파크 ▲흑산도에 코빌리조트 ▲굴도 해양펜션단지 ▲도덕도 해양리조트 ▲면전 휴양타운 ▲우수영권 관광체험타운 등 발전촉진지구 등이다. 투자촉진지구는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대양 일반산업단지 ▲군내 일반산업단지 ▲중·소형 선박 조선타운 ▲고하도 유원지, ▲목포 북항지구 관광특구 ▲화산 연꽃방죽 문화체험타운 ▲군내 농공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 농어촌 531개교 폐교 위기 몰린다”

### 전남도, 초·중·고·대학 시·행령 개정 중단 촉구

전남도는 29일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및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 학교를 적정 규모의 학교로 개편하는 내용의 초·중·고·대학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다.

도는 건의문을 통해 “교육부의 초·중·고·대학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대도시와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제고해 달라”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초·중·고·대학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했다.

도는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도내 초등학교 338개교, 중학교 146개교, 고등학교 47개교 등 무려 531개교가 통폐합 대상학교(분교 포함)에 해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실상 읍 지역과 시 지역의 초·중·고·대학 폐교 면 지역이나 도서벽지, 시

변두리 학교 등은 모두 폐교위기로 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준영 전남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 학급 수 초·중·고 6학급, 고등 9학급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오지·낙도 및 농어촌 학교의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무교육 대상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 전남과 여건이 비슷한 전북, 경남·북, 충남·북, 강원 등의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교육 및 학부도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강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내년도 국비확보 전략 수립



광주시는 29일 시장실에서 각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국비지원 요청 추진 상황보고회’를 가졌다.

광주시는 29일 강운태 시장과 각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국비지원요청 추진 상황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국비신청기한 마감 일인 31일에 맞춰 내년도 국비지원 요청사업의 신청결과와 중앙부처 방문활동 상황 및 효과적인 국비확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시는 정부가 균형재정 회복을 위해 내년부터 신규사업을 포함한 지자체의 국비지원사업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1월부터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과 7차례에 걸친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는 등 내년도 국비확보에 열을 올렸다. 특히 실·국·과장 등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들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국비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집중 설명하는 한편 강 시장도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오는 6월 초순에 국비확보를 위해 전 중앙부처 방문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중앙부처 예산안 반영단계(6월),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반영단계(7월~9월), 국회예산안 추가 및 증액반영 단계(10월~12월) 등 단계별 국비확보 전략도 수립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개별공시지가 작년보다 1.4% 상승

광주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29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지역 38만5000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결과 광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1.4%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1.9%로 가장 높고 광산구 1.8%, 남구 1.3%, 서구 1.0%, 동구 0.2% 등의 순이다.

광주지역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동

구 충장로 2가 16번지 ‘우체국 부지’로 m당 1000만원에 달했다. 최저 지가는 광산구 사호동 산118번지로 m당 508원이다. 개별공시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광주시 최만욱 토지정보과장은 “오는 31일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광주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서 열람할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의 이익의 신장은 다음달 29일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광주 개인택시 신규면허 경쟁률 4.9대 1

광주시는 29일, 8년 만에 발급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접수한 결과 평균 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이후 8년 만에 법안택시 장기근속 무사고 택시 운전자들의 속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신규 면허 50대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일부터 면허공고하고 11일부터 2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245명이 신청했다.

택시 운전자는 40대 면허에 1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인 1순위자 156명이 몰렸고, 국가유공자는 2대 면허에 27명, 5·18민주유공자는 1대 면허에 10명, 시내버스 운전자는 4대 면허에 18명, 사업용 및 기타 운전자 등은 3대 면허에 34명이 각각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운전경력 심사와 이의신청, 최종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29일 최종 면허 확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1면 '19대 국회'에서 계속

‘가장 우선시할 입법 활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와 관심 내용이 달라 제각각인 가운데 2명의 의원이 ‘지방재정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등 재정개혁 추진 방안 마련하겠다”, 주승용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입법을 하겠다”고 각각 말했다.

이 질문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제정 무산된 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을 다시 약속했으며 이윤석 의원은 공직선거법 상 불

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정, 김승남 의원은 친환경농업의 개념 정립부터 다시 하는 등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을 각각 주목해 눈길을 끌었다.

‘가장 우선시할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의원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들었지만 몇몇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박지원·이윤석 의원), “지역현안 예산을 확보하겠다”(임내현 의원), “지역구성원과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강기정 의원)는 식의 원론적 답을 내놓기도 했다. 여수를 지역구로 둔 김성곤 의원은 최우선시하는 입법

활동과 지역 현안에 대해 모두 ‘여수 박람회 시설 사후 활용’이라고 답해 18대 국회부터 전착해온 문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황주홍 의원은 “입법·예산적으로 농항기를 앞에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싶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시민과 함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고, 박준영 전남지사는 19대 국회가 극단적인 싸움을 지양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범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함평다이너스티CC**  
**신입 및 경력사원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산다, 친환경 나비의 고향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주부사원(만35세이하)
- 급 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경력자 면접 후 결정
-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기숙사 제공, 1일 3식 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등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면접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총원시까지(총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국청리 산1-6  
- 담 당 : 식음료팀 이상욱 팀장  
- 전 화 : 061-320-7799  
- 이메일 : guy0818@hanmail.net

**중의 침구학 중국자격증 & 학위취득을 위한 세미나**  
**공개강좌 & 수강생모집**

- 중국 중의약대학교 18년간 학술교류로 체계화된 교육과정
- 중의약대학 침구과(3년), 중의과(5년) 학점인정
- 해외에서 인정되는 중국 자격증 취득가능
- 중국, 미국 한의대 석박사과정 입학 및 편입가능
- 의료개방 대비, 자기 건강관리, 해외봉사를 위한 연수세미나
- 해외이민, 한방병원 설립 및 해외진출, 취업지원

**“알기쉬운 침구학” 세미나과정**

- 기본과정(4개월~주1회3시간)  
주요과목 : 침구학개론 (침뜸기초, 경락경혈, 침구치료), 한방기초
- 전문과정(1년)  
주요과목 : 중국침구학연수,중의학,경혈학, 진단학,방안학,해부학등

**공개강좌일정** 광주27기) **6월 1일(금) 오후 2시**  
위치 : 쌍촌역 1번출구에서 화정역방향으로 50m직진 3층

\* 본 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서울분원/대전분원/대구분원/부산분원/울산분원/광주분원/제주분원

**전남 영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외 1필지 (전남지방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 건물면적 : 7,305.36㎡(지하 1층, 지상 3층)

■ 입찰진행내용

구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과
1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차	2012. 06. 11	6,662,793,000원	
3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